

2.8독립선언서 100주년을 기념하며

-- 미국의 독립선언서와의 비교

최연홍(시인)

서론

2019년 2월 8일은 한국의 역사상 최초의 독립선언서 100주년 기념일이다.

이 글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한국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2.8독립 선언서를 비교하려 한다. 두 독립선언서 사이에 143년이란 시차가 있고 두 개의 다른 대륙과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두 독립선언서에는 신기하리만큼 유사점이 보인다. 독립선언의 이유, 독립해야 할 명분이 선명하게 쓰여 있다. 그리고 세계에 그들의 독립선언을 알리는 의도가 같다. 미국의 대륙의회 Continental Congress에 모인 13개주의 대표자 56명의 서명과 일본의 조선유학생이 조직한 조선청년독립단의 11명의 대표자 서명도 똑같다. 두 독립선언서는 모두 이상적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 그 둘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간다.

먼저 이 글은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기보다는 한 시인으로서 쓴 글임을 서두에 밝힌다.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서는 2.8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하여 쓰였고 후일 무오년에 쓰였다고 알려진 독립선언서는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로 쓰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무오독립선언서는 1918년, 무오년 음력 12월에 북간도의 애국자들이 처음 모여 독립선언서를 생각한 기록은 있지만 실제 독립선언서가 쓰인 날자는 1919년 기미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북간도에 전해진 후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다(송우혜, 『역사비평』, 1988년 6월, 144-178쪽).

2.8독립선언서는 일본 도쿄에 유학중인 조선학생들의 뜻을 모아 춘원 이광수가 초안한 글이다. 3.1독립선언서는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육당 최남선이 춘원의 2.8독립선언서를 보고 나서 쓴 글이고, 무오독립선언

서는 북간도의 조소앙이 3·1독립선언서를 보고 나서 쓴 독립선언서가 된다. 그래서 3개의 조선독립선언서는 내용과 구성이 서로 비슷하다.

1919년, 일본의 조선합병 후 10년이 되던 해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일본의 수도와 조선의 수도, 북간도의 수도에서 조선의 애국자들이 선언한 것이다. 기미년에 일어난 독립운동과 그 최초의 독립운동의 선언서를 다시 읽으며 이 역사적 문헌을 심도 있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의 독립선언서와 조선의 독립선언서를 비교함은 관련 분야 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과제다. 이 글은 오직 2·8독립선언서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비교하는 것에 한정한다.

유사점에 앞서 먼저 차이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미국은 식민지의 지위에서 독립국으로 가는 선언이요, 조선은 2000년 이상 독립국을 유지하다가 일본의 강압적 합병으로 식민지가 되어 그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독립국임을 세계의 선포하는 선언이다. 미국은 이미 독립전쟁을 시작한 후 나온 독립선언서이지만 조선의 2·8독립선언서는 독립전쟁을 동반하지 않은 민족자결의 이상적인 선언이다. 이미 세계 5대 군사강국인 일본에 전쟁을 선포하는 조선인의 선언이 아니라 “혈전을 불사하겠다”는, 다시 말해 “맨주먹으로 마지막 한사람까지 싸운다”는 지극히 수사학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선언문 사이에 인간의 동등권,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이상향이 공통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영국식민지대표들이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이지만 조선의 독립선언서는 일본유학생인 조선청년들 11명 대표들이 채택한 선언문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이 기안하고 5인 위원회가 독해하여 식민지대표자들의 의회에서 인준한 선언문이지만, 조선의 독립선언서는 도쿄 유학생 춘원 이광수가 주도해서 몇몇 유학생 대표자들이 독해하고 조선청년단 이름으로 선언한 것이다. 독립을 꿈꾸던 젊은 조선청년들이 도쿄 YMCA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유학생 대표자로 근촌 백관수가 낭독하고 거기 모인 유학생들이 인근의 히비야 공원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사건이다. 백관수와 다른 유학생들의 8개월 교도소 형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미국은 1775-1783년 독립전쟁의 승리로 독립을 성취했고, 조선은 1945년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로 일본

천황의 항복 및 태평양전쟁의 종식과 함께 해방을 맞이했다.

하지만 두 개의 독립선언이나 선언서가 곧바로 두 나라의 독립을 결과한 것은 아니다.

독립선언서 내용분석

미국 독립선언서

1776년 미국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인 제2차 대륙의회에서 채택한 미국독립선언서는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안으로 새로운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철학을 담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권, 생명과 자유, 행복의 추구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등은 어느 정부도 유린할 수 없으며 박탈할 수 없다는 선언은 중주국 영국 존 로크 John Locke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역설적으로 식민지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존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로 “자유주의 사상의 아버지”로 존경받았던 사상가이다. 그는 사회계약이론을 발전시키고 정부는 통치받는 자들의 동의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론을 정립했다. 또한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인간의 자연적 권리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자연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구성원이 사회를 만들었다는 사회계약이론은 그에게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였다. 그의 자유주의 사상은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 Rousseau, 데이빗 흄 David Hume, 볼테르 Voltaire, 칸트 Immanuel Kant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독립에 대한 열망은, 그 해 정월 토마스 페인 Thomas Paine이 간행한 『상식 *Common Sense*』이라는 팜플렛이 열광적으로 읽히면서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피식민자로서의 수치와 정치적 각성을 일깨우게 하였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메가 베스트셀러로 15만부가 팔려나간 인기서로 제퍼슨과 식민지의 지도자들을 크게 깨우쳐준 책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미국의 독립을 지원할 의사를 갖게 할 것이라는 꿈을 갖게 해주었다. 처음엔 막강한 영국의 군사력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은 거의 없었지만 차차 영국과 경쟁국이었던 불란서의 군사적 지원을 얻어서 승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당시 13개 식민지 주들은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

고 있었지만, 인간의 기본권, 삶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선언문은 식민지의 서로 다른 이해를 뛰어넘어 모두를 하나의 독립 열망으로 몰고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위대하다. 토마스 제퍼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독립선언서인 것이다. 그 스스로 그의 묘비에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버지니아 주의 종교의 자유선언을 기초하고 버지니아대학을 세운 사람이라고 써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보면 그가 이 독립선언서 기초자로서 생애 최고의 공지를 갖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의 묘비에는 미국의 대통령을 했다는 말은 없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미국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헌이 되었다. 새로 시작하는 신생국 미국의 가치는 인간의 동등권과 정부와 시민의 민주주의적인 관계 정립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원자탄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고 천명한 윌리엄 더글러스 William O. Douglas 대법원 판사의 말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1960년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가치, 그것은 인류사에 위대했다.

1776년 세계는 아직 왕권시대였고 왕권은 신탁으로 인정되었다. 학자들의 자유민주주의적인 논문이나 저술에서 현실로 달려 나온 인간의 기본권은 토마스 제퍼슨의 문학적 어휘들이었지만 미개한 식민지의 새로운 새벽을 연 혁명적 문장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영국의 학정을 비판하고 있다. 영국의 통치는 식민지인의 의사를 계속적·지속적으로 무시해왔으며 그들의 의사를 반대한 정책으로 일관한 절대적 폭군의 전제정치였음을 질타하고 있다. 식민지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영국정부의 처사, 왕정을 하나하나 솔직하게 열거하고 있다.

1. He has refused his Assent to Laws, the most wholesome and necessary for the public good.
2. He has forbidden his Governors to pass Laws of immediate and pressing importance, utterly neglected to attend to them.
3. Right of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has yielded to Tyrants. All have been into compliance with his measures, dissolved Representative Houses repeatedly for opposing with many

firmness, his invasions on the rights of the people. He obstructed the Laws for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4. He obstructe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diciary power.
5. His Armies without the consent of our Legislatures.
6. Cut off our Trade with all parts of the world.
7. Imposed Taxes on us without our Consent.
8. Take away our Charters abolishing our most valuable Laws and alter fundamentally the Forms of our Governments.
9. Suspended our own Legislatures.
10. Out of his Protection and waged War against us.
11. Plundered our seas, ravaged our coasts, burnt our towns and destroyed the lives of our people.
12. Showed cruelty and perfidy barbarous ages.
13. Our petitions to protect our lives are unanswered.

자유롭고 독립적인 각각의 주는 이제 영국의 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들 13개 주는 각각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행운, 그리고 우리들의 성스러운 명예를 찾아 서로 협력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들의 기본권이 하나님이 내려준 신탁이라고 선언하며 결론을 맺는다.

조선 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는 춘원 이광수의 글이다. 그에게는 미국의 대륙의회도 정당의 후원도 없었다. 스스로 중형무진 동분서주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한 일들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이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조선의 지성인들을 찾아가 설득했다. 서울 중앙학교 교사였던 현상윤, 교장이었던 고하 송진우에게 서울에서의 독립선언과 운동을 일으킬 것을 부탁하고 그는 그가 중퇴한 와세다대학으로 돌아가 2·8독립선언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다. 그는 1917년 11월 북경에서 그의 아내가 될 허영숙 여사와 사랑의 도피 여행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기구와 세계질서가 도래할 것을 알고 약혼녀를 북경에 두고 단신 서울로 들어와 현상윤과 만나고 도쿄로 들어간다.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친구를 설득하고 일본으로 떠난 것이다. 아울러 현상윤에게 최린과 함께 천도교의 손병희를 반드시 포섭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천도교의 조직력과 정치적 역량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일본의 수도에서 먼저 독립선언을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다행히 도쿄에는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었다. 독립선언서는 그가 기초하고 동지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측한다. 독립선언서는 처음부터 그의 몫이었다. 이미 그는 당대 조선 최고 문필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가 서울에서 나오는 <매일신보>에 1월부터 6월까지 연재한 소설 『무정』은 그를 조선 최고의 작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2.8독립선언서는 조선의 역사에 침략을 당하고 잠정적 지배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식민지로 전락한 적은 없으며 한일합방이 불법적으로 무력적으로 자행된 강도의 짓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합방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난 10년 조선인은 차별대우를 받았고 그런 차별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역설한다. 조선 독립선언의 이유를 그는 조선민족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세상을 구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첫째, 조선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민족이라고 선언하고, 미국과 영국이 일제의 조선 침략을 승인한 것을 비판하였다.

둘째, 침략의 부당성과 한국병탄 후 10년간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셋째, 국제적인 환경을 볼 때, 일제가 지금까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구실로 한반도에 들어왔던 일이 있었을지라도 자신만의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를 점령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넷째, 일제가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를 계속한다면 일제에 대해 우리 민족은 영원히 투쟁할 것이며 결국은 ‘동양평화의 화원(禍源)’이 될 것이라고 일본에 경고하였다.

다섯째, 선언서는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모범을 따라서 신 국가를 건설하고 반드시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선언서는 당시의 정세 속에서 기본적인 보편적 세계사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건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담아냈으며 독립의 당위성을 국내외에 선전하였다. 결의문은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현실적인 행동강령을 선명하게 천명하였다.

우선 조선국 병탄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며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독립을 주장한다고 전제하고, 일본 의회와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과 만국평화회의에 민족자결주의 적용을 요구하고 아울러 실패할 때에는 일제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할 것을 선언하였다.

2·8독립선언서는 도쿄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발표한 ‘독립선언서’로 ‘3·1선언서’의 기본이 되었다. 조선청년독립단은 선언서 600매, 청원서 1,000매를 인쇄하였고, 선언서는 독립의 이념과 사상을 선언과 결의문의 형태로 천명하였다.

두 개의 독립선언서 비교

두 개의 독립선언서는 막강한 식민지 지배를 거부한 이상주의적 자유민주주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둘 다 결의문이고 둘 다 명문장이다. 토마스 제퍼슨은 그 시대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을 미국의 독립정신에 끌어들이 인간적 기본권-삶, 자유-행복의 추구-가 어느 정부도 유린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임을 천명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의식 혁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영국 식민정부는 필라델피아에 모인 13개 주 식민지 대표들의 의회진행을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독립선언서를 쓴 제퍼슨뿐만 아니라 누구도 체포 구금하지 않았다.

일본은 2·8독립선언을 주도한 학생대표들을 체포·구속했다. 춘원 이광수는 이를 피해 상해로 탈출했다. 춘원은 토마스 제퍼슨이 쓴 인간의 기본권을 기초로 우드로 윌슨이 천명한 제1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제안한 14개 원칙 속의 민족자결의 원칙(1918 Woodrow Wilson's Fourteen Points 참조)을 더하여 조선민족의 자유로운 사상과 의지를 2·8독립선언서에 담았다.

토마스 제퍼슨에게 존 로크의 민주주의 정치사상이 있었다면 춘원에게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Daisho Democracy’라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있었다. 제

퍼슨에게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이 있었다면 춘원에게는 현상윤, 송계백, 최팔용 등 가까운 동지가 있었다.

일본의 막강한 힘에 맞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조선 청년들의 의로운 외침이었다. 춘원은 토마스 제퍼슨의 이상주의적 외침이 결국 미국의 독립을 가져왔다고 믿고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조지 워싱턴 George Washington 이 총사령관으로 영국군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한 사실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는 사상의 힘이 한 시대를 이끄는 동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당대 조선의 최고 작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2·8독립선언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쓴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스스로 번역해 외신기자들에게 보냈다. 그는 이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던 조선 지성인이었다. 세계를 향해 일본의 지배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스스로 홍보대사의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 그 당시 어느 조선인도 경쟁할 수 없었던 영어실력과 국제적 정치 감각이 돋보이는 지점이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민족주의사상은 명확히 민족자결·민족생존의 권리에 의한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혈전까지도 불사한 처연한 혁명적인 내용이다. 이처럼 2·8독립선언서는 국제정치에 대한 식견의 탁월함을 보임과 동시에 강경한 입장에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 의연한 자주민족운동 선언이라 할 수 있다.

2·8독립선언서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을 상대로 민주주의적 민족회의를 열어 조선의 뜻을 물어보라고, 지극히 교육적이고 이상적인 회의를 소집하라고 일본의회에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스스로 조선의 독립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바라보라고 의젓하게 가르치고 있다. 일본정치인들을 훈도하는 “선생님”의 메시지가 담대하다. 시인이나 작가의 자궁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선민족은 마지막 한사람까지 일본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고 위협한다.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도 이만하면 놀랄 만하다.

2·8독립선언은 항일 학생독립운동의 출발점이요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임시로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4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 한복판에서 조국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사건이 되었다.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국내외에 수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춘원 스스로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했고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된다.(김사엽 편, 『춘원 이광수 애국의 글』, 문학생활사)

제퍼슨과 춘원

하루아침에 독립선언서가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니다. 필자는 제퍼슨의 교육사상, 정치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위대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쓰게 했다고 본다. 제퍼슨은 버지니아 대지주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14세에 아버지를 잃고 17세 College of William and Mary에서 2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렇지만 그는 문필가, 철학자, 과학자, 농장주, 건축가, 예술가, 정치인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1774년 식민지시대 버지니아 주의 대표자로서 첫 번째 대륙회의에 참석, “식민지 미국의 권리에 대한 견해” Summary View of the Rights of British America를 발표했는데 그 때엔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의사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1776년 6월 두 번째 열린 대륙회의에서 그는 1774년과 다른 독립선언서를 쓴다. 그의 정치사상의 성숙보다도 그가 살고 있었던 식민지의 정치적 변화가 그렇게 식민지 대표자들의 회의를 이끌고 갔으리라고 생각한다. 그의 나이 33세에 그는 위대한 독립선언서를 썼다.

춘원 이광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로 성장했다. 그가 어린 시절 받은 한문교육, 명치학원의 중학교육, 오산학교 교사 경험, 중국과 시베리아 방랑, 와세다대학의 교육 등 그의 지성과 양식이 2·8 독립선언서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는 방랑자로서 북간도, 상해, 연해주에 흩어져 살던 조선의 애국자들·망명객들과 교류·교우하고 오산학교에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일본행을 택했다. 그의 방랑벽은 수많은 인연을 만들었고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일본의 춘원 전문가 하

타노 세츠코 니가타대학 교수는 말하고 있다.(하타노 세츠코,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2016)

그가 당시 격변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명석한 두뇌의 힘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살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겼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인간관계에서 나왔다고 본다. 상당한 독서량이 물론 그의 지성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게 한다. 그가 쓴 자서전, 『나의 고백』(우신사, 1985)의 한 장인 ‘기미년과 나’(191-225쪽) 속에는 기미년 당시의 그의 활동이 언급되어 있다.

춘원은 이곳에서 2·8독립선언서보다는 상해 임시정부시절의 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가 2·8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미국 독립선언서를 참고했다는 말은 없다. 토마스 제퍼슨이나 미국의 역사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는 그가 한 일을 과대포장하지 않은 자서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노출하고 있다. 그의 겸손한 마음이나 글쓰기는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가 메이지학원에 다니던 무렵 『신한자유종』이란 등사판 유학생회보를 만들며 그 표지에 필라델피아의 깨어진 종을 표지화로 쓴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필라델피아 회의 Philadelphia Convention를 이미 잘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그가 중학생시절에 만든 유학생회보가 이미 일본경찰의 요시찰 대상이 된 상황을 본다면 그는 이미 세상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으리라. 그는 이미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어린 학생이었을 것이다. 어린 나이의 이광수가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상징이며 노예해방의 상징인 이 종에는 다음과 같은 구약성경 레위기 일절(Leviticus 25"10)이 새겨져 있다.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춘원 전문가, 한국근대문학관의 함태영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춘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보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숙지하고 있었으리라고 말한다. 그가 메이지학원에서 수학할 적에 그의 독서량과 그가 이미 발표할 링컨전기나 번안한 『검둥이의 설움』,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독립운동, 그가 오산학교를 퇴직하고 나서 중국과 연해주를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만난 조선의 망명정객들과의 교류가 모두 그의 2·8독립선언서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그의 편지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다.

“춘원이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를 읽었다는 것과 알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춘원도 글을 기고했던 잡지 『소년』 1910년도 판에는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춘원은 미국작가 헤리엇 비처 스토우가 쓴 영클 톰스 캐빈 Uncle Tom’s Cabin 을 <검둥이의 설움>이라는 책으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원본을 옮긴 게 아니라 일어 본을 번역한 중역입니다. 잡지 『소년』은 육당과의 관계로 보아 확실히 읽었을 것입니다. 『소년』의 링컨 관계 글이나 『검둥이의 설움』은 제퍼슨의 독립선언서와 그 핵심이 같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춘원이 제퍼슨의 글을 읽었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외에 미국과 미국 독립운동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당시 자료로는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과 1899년에 나온 『미국독립사』나 이해조가 1908년 번역한 『화성돈전』, 이인직의 『혈의누』(1906) 등이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미국의 독립전쟁이나 독립영웅 워싱턴, 미국의 풍경 등을 담은 책으로 춘원과 시대를 같이하기 때문에 춘원이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책들입니다” (함태영, 개인편지, 2018)

춘원이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에서 나오는 <신한민보> 편집인으로 일하기 위해 미국행 여비를 얻기 위해 북간도와 연해주의 국민회 인물들을 만난 것으로 보아 그는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독립운동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미국은 갑신정변에 실패한 몇 젊은이들이 망명지로 선택한 나라였고 서재필이 미국의 수도에서 공부하고 의사로, 그리고 10년 후 고종의 대미 특별자문역을 담당하면서 귀국,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러다 그의 진보적인 사상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혁명아를 그는 잘 알고 있었으리라.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조선이민들이 1903년부터 정착했고 그들의 일부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이주해 있었다.

그가 2·8독립선언서를 쓰기 전에 <매일신보>에 연재한 『무정』이라는 소설 속에는 미국으로 유학하는 주인공이 나온다. 그는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문필가라고 생각하는데 다수는 동의할 것이다.

2·8독립선언서가 나오기 전 10년, 20년의 미국 안에서 일어난 한인들의 초기 역사를 더듬어보자.

1908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부두에서 일본의 한일합방을 옹호한 일본 정부의 자문역인 더함 화이트 스티븐스 Durham White Stevens를 저격한 사건이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장인환과 전명운이 그들이다. 전 미국에 살고 있던 동포들이 재판 비용을 모금해 그들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장인환은 장경계 대동보국회 소속이고 전명운은 도산 안창호계 소속 인물이었다. 두 열사들은 서로 모의하고 저격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거사에 참여했던 것이다. 전명운이 먼저 쏘았으나 불발되었고 장인

환이 쏜 3발이 치명타가 되었다.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한인이 150명 살고 있었다. 동포들은 재판 비용 7390달러를 모금했는데 이 돈은 그 당시로선 거금이였다. 그 당시 미국 본토에 한인은 1000명, 하와이에 5000명이 살고 있었다.(민병용, 『미주이민 100년』, 한국일보사출판국, 1986)

불행하게도 두 열사가 다른 계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한인 사회가 그 시대에도 분열되어 있었다는 말이 된다. 하와이 국민회가 1905년 이승만과 윤병구를 일본과 러시아 평화협상을 중재하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조선의 독립을 청원한 일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들이 들고 간 탄원서는 필라델피아 서재필 선생이 보고 고친 최종안이었다. 결국 이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지만 미국 안의 조선동포의 조국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이었다.

1908년 7월에는 네브라스카대학에 유학 중이던 박용만을 중심으로 한 애국동지회대표자 회의가 콜로라도 Colorado 덴버 Denver 에서 소집되어 <덴버타임즈 Denver Times>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이 회의에는 이승만도 참석하고 고종의 헤이그 밀사 이상설도 참석한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는 불참했다. 네브라스카대학 재학 중 소년병학교를 세우고 조선독립을 위한 군사력의 필요를 역설한다. 박용만의 애국동지대표회 발기취지문을 다시 읽어보자. 110년 후에 읽어도 부끄럽고 감동적이다. 그의 한이 오늘 우리들의 한이기 때문이다.

“그윽히 생각하건대 오늘날 우리 한국은 세계에 수치 당한 나라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세계에 한을 품은 백성이라. 4000년 영광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것을 뒤 아니 회복코저 하며 2000만 생명이 하늘을 부르짖으니 이것을 뒤 아니 슬퍼하리오.

그러나 천백의 사람이 흠어지고 수삼 년에 소식이 격절하여 비록 비상한 사변이 이왕 있었어도 온 사회가 이미 공동한 의론이 없었고 또한 절해한 기회가 앞에 당하여도 매양 동일한 방책이 없었으니 이는 사회의 결점이요 국사의 방해라.” (이상목, 『칼의 길 - 독립지사 박용만과 그의 시대』, 문학나무, 2018)

대학 재학 중에도 박용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오는 <신한민보>의 주필로 조국 독립을 위한 문필가로 활동하기도 한다. 박용만은 졸업 후 하와이

로 이주하여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하고 1913년 이승만을 하와이에 초청, 함께 뜻을 모아 국민회를 만들었으나 후일 두 인물은 결렬하고 박용만은 하와이를 떠난다. 1909년 2월 1일 국민회가 창립되어 하나로 뭉쳐지고 있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사가 하얼빈 기차역에서 이등박문을 저격한 사건도 미주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박용만은 1917년 뉴욕에서 열린 약소국 대표자회의에 참석,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연설을 행한다. (이상 목, 앞의 책)

춘원의 2·8독립선언서가 나오기 전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독립운동은 춘원에게 상당한 지성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필자가 이렇게 1900-1910년대 중요 역사적 상황을 서술한 이유는 춘원의 2·8독립선언서 작성에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미국의 이상적 민주주의 정치, 미국 속의 한인 사회의 독립운동사를 숙지하고 있었을 춘원의 지성적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속의 한인 독립운동사보다 춘원의 2·8독립선언서에 미친 중요한 요소는 제1차 세계대전 종식 후 올 세계 질서의 재편에 우드로 윌슨 Woodrow Wilson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천명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의 꿈이요, 희망이며 최고·최대의 힘이 되었을 것이다. 춘원이 북경의 애정도피 여행을 중단하고 먼저 서울을 거쳐 도쿄로 온 이유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 독립을 선언하는 일이었고 그가 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윤식 서울대 교수는 그의 『이광수와 그의 시대』에서 춘원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암송하고 있을 정도여서 제퍼슨의 독립선언서와 유사한 2·8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주장을 지원할 만한 믿을 만한 자료는 아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김윤식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읽고 2·8독립선언서와 비교한 것 같지도 않다. 왜냐하면 춘원의 글은 제퍼슨의 글과 많이 다르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 정부와 시민의 민주적 관계를 같이 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춘원의 글은 민족자결주의를 다른 하나의 키워드로 삼고 있다.

춘원에게 제퍼슨의 미국독립선언서는 미국과 세계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시

적 비전이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출생이나 부,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동등한 권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정부의 선물이 아니라는 주장, 그리고 정부는 시민을 섬기는 하인이라는 개념을 그의 정치적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제퍼슨에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춘원에게는 월슨이 제안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바로 조선민족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input 힘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꿈꾸는 이상주의자, 아니면 미국이 조선을 일본의 통치에서 구해줄 수 있는 은인의 나라이며,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당시 미국의 힘은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지상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고종 황제도 일본과 러시아 각축장이 된 조선을 구해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은 약소국에 차가웠다. 조선은 자치능력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춘원은 어린 나이에 일본에 유학해 직접 본 일본의 근대화, 그의 두 번째 일본 유학에서 바라본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그 속의 일본 근대화시대의 민주주의 싹을 보았고, 와세다대학 시절에 일본의 정치사상의 한 축이었던 자유주의 사상에 매료 되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미국의 일본 전문가 라이샤워는 그의 고전적 저서 『Japan: Past and Present』에서 메이지 천황이 죽고 다이쇼 천황이 나왔지만 천황의 역할을 담당할 능력이 없어 대중적 민주주의 나라가 올 수 있었다는 것과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 영국, 불란서의 새로운 물결이 일본 해안을 강타했다고 보고 있다. 그때까지 일본을 지배했던 근대화 물결 속에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권위적 문화가 한 모형으로 들어와 있었다. 새로운 정치사조 속에는 영미적 민주주의, 대중적 민주주의 물결이 파도치고 있었다. 새로운 일본의 문화 속에는 나츠메 소세키의 글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Edwin O. Reischauer, *Japan: Past and Present*, New York: Alfred Knopf, 3rd edition, 1967, Chapter X, pp. 142-147).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춘원이나 조선 유학생들에게 미친 영향도 상당히 크리라고 짐작한다. 새로운 일본의 문화적 물결 속에서 춘원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정치적 문학적 낭만주의를 겪었던 학생 문필가였다. 일본의 춘원 전문가 니가타현립대학 하타노 세츠코 교수는 춘원이 만났던 일본의 새

로운 물결을 다음과 같이 그의 『일본유학생 작가연구』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 저서에서 하타노는 춘원이 두 번째 일본유학에 오른 1915년에서 1919년 2·8독립선언서를 쓰고 상해로 탈출하기까지의 5년 기간의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춘원의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동의한다. 2·8독립선언서를 쓸 무렵 춘원의 지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일본 교육과 사회 풍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적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생의 기쁨을 맛보고 그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빠져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의 희망도 보았을 것이다.

“이 5년 사이 일본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메이지천황이 죽어 연호가 다이쇼로 바뀌었다……. 이 무렵 일본 경제는 호황기를 맞고 있었다. 일러전쟁 때부터 줄곧 만성적인 불경기에 시달려온 일본 경제는 바로 전해 발생한 세계대전 때문에 불경기에서 벗어나 이 해 여름부터 호황기에 돌입했던 것이다. 주식이 폭등하고, 연말 주식시장은 공전의 활황을 보였다. 정치면에서는 다이쇼 초기의 헌정 옹호 운동과 다이쇼 정변을 거쳐 민중의 정치 의식이 고양되고 요시노 사쿠조와 카야하라 카잔이 민본주의를 제창하는 등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학계에서는 시라카바파 젊은이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기를 살리는 것이 그대로 인류의 의제의 실현이라 하여 개인 속에 잠재한 가능성을 펼칠 것을 호소하는 시라카바파의 주장은 이광수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여성들은 ‘신여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처럼 도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광수가 통감한 것은 조국의 국권상실에 의한 변화였을 것이다. 이전에는 외국유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내지 유학이고, 그는 조선총독부의 유학생 감독기관에 의해 감독되는 처지였다.”(78-80쪽)

1910년-1920년 사이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대한 가장 큰 지성적인 기여는 대학교수들과 언론과 재일 유학생의 다수가 다닌 와세다대학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국사편찬위원회 윤덕영 연구원은 서술하고 있다.

와세다대학 정치학과의 다카다 시나에, 우키타 가즈타미, 오야마 이쿠오, 경제학과의 아마노 다메유키, 아베 이소오, 식민지정책학의 나가이 류타로, 역사학과의 우치카사기 사키사부로 등과 동경제국대학 정치학과의 미

노베 다즈키치, 요시노 사쿠조, 철학과의 쿠와키 겐요쿠, 게이오대학의 후쿠다 도구조 등 교수들과 중앙공론의 타키타 테츠타로, <오사카 아사히 신문>의 터리오 테루오, 하세카와 노제칸 등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주의 사상을 확산시켰다(고하 송진우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의 근대국가 사상과 민족운동가로서의 위상』, 2016. 15쪽).

춘원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기의 사건은 와세다대학생으로 1917년 서울에서 나오는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 『무정』을 1월부터 6월까지 연재한 사실일 것이다. 그는 한국 근대문학 최초의 장편소설을 생활비를 얻는 수단으로 시작하여 당대 최고의 작가로 떠오르게 했고 최고의 문필가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니, 그의 문명으로 하여 그는 총독부의 고급관리와 교류하게 되었고 일본의 지한파에 호감을 주는 조선의 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문필가의 삶을 추구했고, 총독부 기관지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생활수단으로부터 주어진 식민지시대 조건에서 조선 문필가로서 일본당국에 적절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글을 쓰는 만족감을 누리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타노의 생각도 필자와 같다. 이러한 춘원의 적당한 선에서 조선인 문필가의 긍지와 친일의 중간선에서 고뇌하며 사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갔으리라고 추측된다. 식민지 시대 그에게 살아가는 최선의 길을 그는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이 모습이 춘원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자들에게 상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가 심심산골 초막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며 연명하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누렸다면 그는 배타적 민족주의자 명부에 올랐겠지만 그에게 그 기대는 지나친 것 아닐까.

결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The world is nothing but thought. -- Virginia Wolf

2.8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춘원의 언어, 일본에 혈전을 선언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의 객기로 보는 견해와 그의 심중에 쌓였던 진솔한 저항의 노출로 보는 두 가지 견해 가운데 필자는 후자를 택하고 싶다. 그는 소년 일본유학생 시대에도 철저하게 일본의 요주의 인물로 지목을 받았고 문장이 아닌 연설의 기회에서는 그의 심중의 진실을 토로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

다. 그가 소년 유학생으로 『대한홍학회보』에 발표한 「옥중호걸」은 그의 심중의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에게 갇힌 호랑이가 바로 조선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양왕용, 「이광수 시의 한국 시문학사에서의 위치와 현실인식의 양상」, 조지 메이슨 대학 무정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7년 10월 28일). 2·8독립선언서의 문장이 그 당대 일본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공분을 춘원이 글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하여 반쯤 동의하지만 생각과 글의 차이는 언제나 있음을 말하고 싶다. 타인이 써놓은 글을 자기도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글을 쓰기란 쉽지 않다. 문필가의 글과 문필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 속의 글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8독립선언서의 내용은 그 당시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공통으로 느끼는 분노였지만 일본의 조선 합병이 폭력적으로 강행되었고 일본이 조선을 위한 보호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주장을 믿고 있었던 순진한 조선인들의 견해를 춘원은 2·8독립선언서 서두에 담고 있다. 고종이 한일합방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심증은 헤이그 밀사 파견사건에서 나타난다. 한일합방이 보이지 않는 폭력 밑에서 이루어진 것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식민지화 할 때 평화적인 수단보다는 무력적, 폭력적 수단이나 협박이 오히려 정상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춘원은 내고 있다. 식민지 하에서 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평등한 대접을 해주기를 바라는 춘원의 마음은 너무나 천진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일본인들에게 춘원은 이상주의자적인 주장을 처음부터 그의 논설에서 주장하고 있었다.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선의의 일본인들은, 적어도 지한파 지식인들은 춘원의 그런 주장을 경청해주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공평하게 대접하기란 지극히 꿈같은 이상적인 발상이다. 아직 어린 문사의 글을 일본총독부의 신문들이 귀엽게 받아들였다고 본다. 조선을 계몽한다는 일본의 명분을 어느 정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춘원은 『무정』 이전이나 이후 그의 논설에서 일본에게 은혜를 구하는 조선인 문필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2·8독립선언서 마지막에 조선의 평등권을 얻기 위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결의하며 그때까지 혈전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사실 독립선언은 식민지의 이상적인 그러나 당연한 권리다. 거기엔 구차한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없다. 독립국가가 정복당해 식민지가 되었다면 당

연히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은 독립할만한 군사적 힘이 없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는 지성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는 식민지로 출발해 200년 후 독립의 필요성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민주주의 사상이 모국인 영국에서 먼저 싹틔고 전제군주주의 왕정에 대한 저항으로 미국은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을 치르게 된다. 토마스 제퍼슨이 쓴 미국 독립선언서는 영국의 민주주의 사상을 이용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행복의 추구권을 어느 정부도 유린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의 전제군주적인 왕권을 거부하며 그 폐단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나아가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다. 식민지가 식민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깨우침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모티브가 된다. 춘원이 쓴 2·8독립선언서는 과거 2000년 독립국가가 식민지로 전락했고 식민지의 착취와 압박, 일본인과 불평등한 조선인의 차별을 모티브로 잡고 있다. 춘원의 독립선언서도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역이용해 조선의 독립을 정당화하고 있다. 두 독립선언서는 이상주의적 주장을 담고 있다. 제퍼슨은 동등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기본권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한다. 그것이 독립선언서를 지성적인 문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성은 이상을 담을 수밖에 없다. 사실 독립선언의 이유는 그렇게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 식민지 암울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독립선언서가 나올 이유도 근거도 없다.

조선의 경우, 2000년 자주 독립국이었던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사실이 10년 후 조선의 지식인들을 일깨워 주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물결이 조선유학생들을 깨우쳐 주기도 했다. 2·8독립선언서는 그렇게 시작한다. 한때 중국이나 몽고, 만주족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지난 2000년간 자주 독립국을 지켜온 나라의 식민지 전락을 울부짖고 있다. 그리고 한일합방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조선 침략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인 차별, 조선 자원의 약탈, 수탈, 착취를 비난한다. 식민지가 어찌하여 식민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불평등한 관계를 파괴하려면 독립을 쟁취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독립선언서의 내용이다. 어느 나라의 독립선언서나 이런 주장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독립은 물리적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거부할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조선은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지성적인 이상적인 독립선언서를 세상에 내놓고 세상의 동정을 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세계는 조선이 자치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

단해 일본의 지배를 목인했다. 결국 조선의 독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승리로 쟁취되었으며 지금도 그로인해 불행한 분단된 나라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2·8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

무오대한독립선언서

김사엽 편, 「춘원 이광수 애국의 글」, 상해임시정부기관지 <독립>에 무기명으로 쓴 항일논설 모음집, <독립신문>, 문학생활사. 1988.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2. 한길사, 1986.

민병용, 『미주이민 100년』, 한국일보사 출판국, 1986.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 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체—발표 시기의 규명과 내용분석」, 『역사비평』 1988년 6월, 144-178쪽.

송진우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의 근대국가 사상과 민족운동가로서의 위상』, 2016.

이광수, 『나의 고백』, 우신사, 1985.

이상목, 『칼의 길—독립지사 박용만과 그의 시대』, 문학나무, 2018.

조지 메이슨대학 무정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2017년.

하타노 세츠코(최주한 옮김),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푸른역사, 2016.

하타노 세츠코(최주한 옮김), 『일본유학생 작가연구』, 소명출판, 2011.

하타노 세츠코(최주한 옮김), 『무정을 읽는다:무정의 빛과 그림자』, 소명출판, 2008.

Everett Carl Ladd, *The American Polity*, New York, WW Norton, 1993.

Book of Leviticus

Edwin O. Reischauer, *Japan: Past and Present*, New York: Alfred Knope, 3rd edition, 1967.

Michael D. Shin, *Korean National Identit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Yi Gwangsu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of 1919*,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8.

Elise Tipton and John Clark, eds. *Being Modern in Japan: Culture and Society from the 1910s to the 1930s*.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Wants, Will, and Hope of the People.

1918 Woodrow Wilson's Fourteen Points

<2.8 독립선언서 전문>

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획득한 세계의 만국 앞에 독립을 선언하노라.

4천 3백 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의 오래된 민족 중의 하나이다. 비록 한 때 중국의 역사를 섬긴 일은 있었으나, 이것은 양국왕실의 형식적 외교관계에 불과한 것이었고 조선은 항상 우리 민족의 조선이고 한 번도 통일 국가를 잃고 다른 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일이 없도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이와 잇몸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이라 하여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앞장 서 승인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여러 나라도 독립을 승인할뿐더러 이를 보전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은 그 뜻에 감사하여 단단히 마음먹고 제반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여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하니 일본은 한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러일전쟁을 시작하였다.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보전은 실로 이 동맹의 취지인지라 한국은 더욱 그 호의에 감사하여 육해군의 원조는 불가능하였으나 주권의 위엄까지 희생하여 가능한 온갖 의무를 다하여서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의 양대 목적을 추구하였다. 급기야 전쟁이 종결되고 당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러일 간의 강화회담(포츠머스 조약)이 열리게 되니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의 참가를 불허하고 러일 양국 대표자 간에 임의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중주권을 안건으로 올렸으며,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옛약속을 위반하여 미련하

고 어리석은 당시 한국 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속여서 “한국의 충실함이 족히 독립을 득할 만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이를 일본의 보호국을 만들었다. 일본은 한국으로 하여금 세계 여러나라들과 직접 교섭할 길을 차단하여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법, 경찰권을 빼앗았고, 다시 “징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해산하며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군대와 헌병경찰을 각지에 두루 배치하며 심지어 황궁의 경비까지 일본경찰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전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에, 다소 명철하다 하는 한국 황제를 쫓아내고 황태자를 옹립하고 일본의 주구로 소위 합병내각을 조직하여 비밀과 무력에 내부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니 이에 우리 민족은 건국 이래 반만년에 자기를 지도하고 원조하노라 하는 우방의 군국적 야심에 희생되었도다.

실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행위는 사기와 폭력에서 난 것이니 실상 이렇게 위대한 사기의 성공은 세계흥망사에 특필할 인류의 대욕치욕이라 할 것이다. 보호조약을 체결할 때에 황제와 적신(賊臣) 아닌 몇몇 대신들은 모든 반항수단을 다하였고 발표 후에도 전 국민은 맨몸으로 가능한 온갖 반항을 다하였으며 사법, 경찰권을 빼앗길 때도 군대해산 시에도 그러하였고 합병을 당해서는 수중에 쇠붙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온갖 반항운동을 다하다가 정예한 일본무기에 희생이 된 자가 부지기수다. 그 후로 15년 독립을 회복하려는 운동으로 희생된 자 수십만이며 참혹한 헌병정치 아래에서 손발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도 일찍이 독립운동이 끊긴 적이 없나니 이로 권하여도 한일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알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와 폭력 아래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운명을 당하였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이 때에 당연히 이를 바로잡기를 세계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 오늘날 세계 개조의 주역이 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보호와 합병을 지난 날 자기들이 숭신하여 승인한 잘못이 있는 까닭으로, 이 때에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할 의무가 있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또 합병 이래 일본 조선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에 반하여 우리 민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대하는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계속 사용하여 우리 민족에게는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적지 않아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기관이 조선민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과 일본인 간의 우열의 차별을 말하며 우리 민족에게

는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노예로 살게 할뿐 아니라 역사를 개조하여 우리 민족의 신성한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업신여겨 소수의 사람 이외는 정부의 여러 기관과 교통, 통신, 군사시설 등 모든 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사용하여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국가생활에 지능과 경험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니 우리는 결코 이러한 무력과 억압으로 제멋대로 처리하는 잘못된 불평등한 정치 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누리기 불가능하다. 그 뿐 아니라 원래 인구가 넘치는 조선에 무제한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니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해외에 유리함을 면치 못하여 국가의 모든 기관은 물론이고 사설의 모든 기관에까지 일본인을 채용하여 한편 조선인으로 하여금 직업을 잃어버리게 하며, 한편으로 조선인의 부를 일본으로 유출케 하고 상공업에도 일본인에게만 특수한 편익을 부여하여 조선인으로 하여금 산업적 발전과 부흥의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우리 민족과 일본과의 이해는 서로 배치되며 항상 그 해를 보는 자는 우리 민족이니,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생존할 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노라.

마지막으로 동양 평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강대국이던 러시아는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신 국가를 건설하려던 중이며 중국도 그러하며 더욱이 이후 국제연맹이 실현되어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없을 것이다. 그러할진대 한국을 합병한 최대이유가 소멸되었을 뿐더러 만일 조선민족이 무수한 혁명과 민란을 일으킨다면 일본에게 합병된 한국은 동양평화를 뒤흔들 불행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하여 뜨거운 피를 흘릴지니 이 어찌 동양평화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우리 민족에게는 한 명의 병사도 없다. 우리 민족은 병력으로써 일본에 저항할 실력이 없다. 그러나 일본이 만일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하노라.

우리 민족은 유구하게 고상한 문화를 지녀왔으며, 반만년 동안 국가생활의 경험을 가진 민족이다. 비록 다년간 전제정치 아래에서 여러 해독과 불행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할지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위에 선진국의 모범을 따라 새 국가를 건설한 뒤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할 줄을 믿는 바이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주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이로써 독립을 이룩할 것을 선언하노라.

결의문

1. 본단은 한일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민족의 생존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뒤흔들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단은 일본의회 및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이루기를 요구함.
3. 본단은 만국강화회의에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위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재한 각국 대사에게 본단의 의사를 각 해당 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위원 3인을 만국강화회의에 파견함. 위 위원은 앞서 파견된 우리 민족의 위원과 일치행동을 취함.
4. 앞의 모든 항목의 요구가 실패할 때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함.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우리 민족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함.

1919년 2월 8일

재일본 동경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최팔용, 윤창석, 김도연, 이종근, 이광수, 송계백, 김철수, 최근우, 백관수, 김상덕, 최근우, 백인수, 서 춘

<저자 약력 및 소개>

Yearn Hong Choi **Poet, Writer, and Commentator**

Educated at Yonsei University and Indiana University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Yearn taught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Old Dominion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worked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81-1983) as Assistant for Environmental Quality. He retired after ten-year teaching at the University of Seoul in 2006.

Yearn's scholarly articles appeared i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s, Water Environment and Technology, World Affairs, Asian Thought and Society, and World Literature Today.

His Op Ed articles also appeared in *the Los Angeles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Washington Times, the Japan Times, the Virginian Pilot, the Indianapolis Star, the Korea Times and the Korea Herald.*

Yeorn is the author of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Essays and Research Notes, Readings in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and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and Management.*

He read his poems at the US Library of Congress as invited poet in 1994 and 2003 under the sponsorship of Poet Laureate and Scholars Program. His memoir, *Song of Myself: A Korean-American Life*, was published in 2010 by Poetic Matrix Press.